

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 간담회(3.19)

환경부 장관 모두발언

- 안녕하십니까. 환경부 장관 한화진입니다.
-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.
 - 기업들이 ESG,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무역장벽에 대응하고, 녹색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
- 환경부는 녹색투자 활성화로 저탄소 경제·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.
 - 이를 위해 녹색채권,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‘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다음의 4대 전략을 이행할 계획입니다.
- 첫째,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녹색투자규모를 대폭 늘리겠습니다.
 - 각 환경목표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,
 - 은행이 여신 부문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.
- 둘째,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.
 - 녹색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및 금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,
 -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글로벌 공시기준과의 정합성을 갖춘 제도로 개편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.

- 셋째, 녹색시장 자금공급 등 정부의 역할을 마중물로 민간의 녹색투자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.
 - 녹색채권, 녹색자산 유동화증권 등 녹색금융을 촉진하고 비용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.
 - 녹색수출펀드, 녹색산업 기술보증 등 다각적 자금공급 방안도 마련 하겠습니다.
- 넷째, 녹색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.
 -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, 위탁 거래를 통해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.
- 오늘 간담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환경부가 녹색투자 분야의 협업을 보다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
 - 아울러 오늘 참석해 주신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